

20. 第2次 首都圈 整備計劃(案)

資料提供：國土開發研究院

1. 수도권정비계획의 배경

1. 계획성격 및 범위

□ 계획의 성격

- 이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, 인구 및 산업배치, 권역별 정비방향,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정함.
- 이 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.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과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·시행하며, 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함

□ 계획의 범위

- 공간적 범위 : 서울특별시,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전역
- 계획기간 : 1997~2011년 (15년간)

□ 계획의 운용

- 이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이 개정 또는 새로이 수립되는 경우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계획의 내용실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함

2. 수도권 현황과 문제점

가. 수도권 현황

-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.8%를 점하나 총인구의 44.9%, 총사업체의 57.9%, 예금·대출의 60.6%의 공공기관의 81.7%를 점하는 등 경제·사회·행정·문화활동의 중심지임.

수도권 집중현황 (1994년 현재)

구 분		전 국	수도권 (%)
인 구 주 택	면 적 (km ²)	99,394	11,726 (11.8)
	인 구 (천명)	45,512	20,445 (44.9)
	인구밀도(인/km ²)	458	1,744
	주택보급율(%)	79.1	72.0
지 역 경 제	지역총생산액(십억원)	262,517	126,337 (47.2)
	총사업체수(개소)	167,403	96,964 (57.9)
	제조업체수(개소)	91,372	50,810(55.6)
	금융 예금(십억원)	135,190	88,517 (65.5)
	금융 대출(십억원)	135,850	82,315 (60.6)
기 능	4년대학수	131	56 (42.7)
	공공기관수(개소)	513	419 (81.7)
	주요기업본사(개소)	100	88(88.0)
	연구기관(개소)	2,248	1,540(68.5)

나. 문제점

- 국토개발상의 불균형 초래
 - 수도권과 지방간 및 수도권내의 과밀·과소지역간 격차발생 초래
 - 지역격차 발생 및 낙후로 낙후지역주민의 반발 초래
- 도시문제의 심화

- 수도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주택난, 교통혼잡 및 공해 등의 증가
- 시설의 밀집 및 지가상승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공급비용 상승

○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

- 수도권내의 무질서한 개발이 다수 이루어져 국토 및 자연환경 훼손
- 공장립지 규제에 따라 무허가 및 공해공장의 증가로 생활환경 저해

3.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

- 6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집중에 의한 지역격차 및 도시문제 발생을 인식하고 「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」을 시작으로 1984년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·추진
-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수도권시책의 효율화 등 시책방향의 전환

< 단계별 수도권 시책의 전개 >

추진 단계	년도	시 책 명	주 관
문제인식기	1964	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	건 설 부
	1969	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	무임소장관실
시책형성기	1970	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	건 설 부
	1970	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(1972-1981)	건 설 부
	1972	대도시 인구분산시책	청 와 대
	1973	대도시 인구분산책	경제기획원
	1975	서울시 인구소산계획	서 울 시
정비추진기	1977	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	제1무임소장관실
	1981	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(1982-1991)	상 공 부
	1982	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	건 설 부
	1984	수도권 정비기본계획	건 설 부
	1992	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(1992-2001)	건 설 부
시책전환기	1994	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	건설교통부
	1997	제2차 수도권정비계획	건설교통부

II. 수도권정비의 기본전략

1. 여건변화 전망

- 세계화와 개방화시대의 도래
 - 동북아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서울과 수도권 역할의 중요성 증대 예상
- 통일관련기능의 확대와 자연환경의 중요성 부각
 -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과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정비에 대한 필요성 증대
 - 수도권에서의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 요구의 증대 예상
- 기술혁신과 광역도시화의 진전
 - 교통·통신의 발달, 사회적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
 - 서울과 주변도시에 밀집된 인구 및 산업이 외곽지역으로 광역화할 전망

<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 전망 >

지 역	변 화 전 망
서울	· 도심 상주인구 감소, 도심공동화문제 대두 · 기능의 고도화에 따른 국제·정보의존형 업무 성장
서울근교 (서울반경 20km내)	· 인구안정, 제조업기능 쇠퇴 · 서울의존도 심화에 따른 자족기반구축 요구 증대
서울중근교 (서울반경 40km내)	· 인구의 안정 성장, 도시간 기능의 상호분담 체계구축 · 서울의 업무기능 및 근교부의 제조업기능의 이전 활성화
서울원교 (서울반경 40km밖)	· 인구증가율의 급속한 신장 · 특화된 기능의 도시 성장 및 도농 통합형도시 발생

2. 장래전망 지표

- 인구 지표
 - 수도권의 추세인구는 2001년에 전국인구의 50%(2,310만명), 2011년에 전국인구

의 54%(2,700만명) 예상

- 인구집중억제의 지속 추진으로 2011년에는 1994년 수준인 전국인구의 45% (2,224만명) 선으로 억제

< 수도권 인가지표 >

(단위 : 천인)

구 분	1994	2001	2011	년평균 증가율(%)		
				'81-'91	'91-01	'01-11
전 국	45,512	47,150	49,865	1.25	0.72	0.56
수도권 (%)	20,445 (44.9)	22,500 (47.7)	22,240 (44.6)	3.33	1.64	-0.12
서울	10,799	10,600	10,200	2.31	-0.28	-0.38
인천	2,208	2,550	2,618	5.57	2.65	0.26
경기	7,438	9,350	9,422	4.65	4.12	0.15

○ 주택공급

- 가구원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대할 전망
-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2011년 이전에 100% 달성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

< 수도권 주택공급 호수 >

기 간	1995	2001	2006	2011
주택보급율 (%)	76.5	84.5	95.4	103.5
주 택 수 (천호)	3,866	5,086	6,025	6,793

○ 공업용지 수급

-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의 공업생산비중이 2001년에는 38%, 2011년에는 37.5%로 전망되어 신규 공업용지수요는 2011년까지 49km²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
- 수도권의 공장용지는 멸실면적을 포함한 가동면적 기준으로 2001년까지 27km², 2011년까지 44km²를 공급

〈수도권 공장용지 공급〉

구 분	1993	2001	2011	증 가 량		
				'93-'01	'01-'11	'93-'11
전 국 (km ²)	455	640	800	185	160	345
수도권 (km ²)	118	143	159	25	16	41
서울	11	9	8	-2	-1	-3
인천·경기	107	134	151	27	17	44

3. 기본목표와 전략

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

-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내 외곽으로 분산
- 분산형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자족적인 중심도시권 육성
- 기능분산 촉진을 위한 지역간 연결 광역교통체제의 확충

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기능 제고와 통일대비 기반 구축

-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·산업고도화 관련기능 확충
-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제 및 수도권기능이 미약한 시설입지는 억제·이전
-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 공간 마련 및 남북교류망 확충

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

- 주택, 상·하수도 교통시설, 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
- 도심혼잡,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적극 개선
-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자연환경 파괴의 적극 억제

Ⅲ.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

1. 기본방향

□ 기본방향

-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
- 지역특성별 자족성 제고로 수도권외곽생활권 구축
- 수도권과 지방, 수도권내 지역간 적정수준의 기능분담을 추진

□ 추진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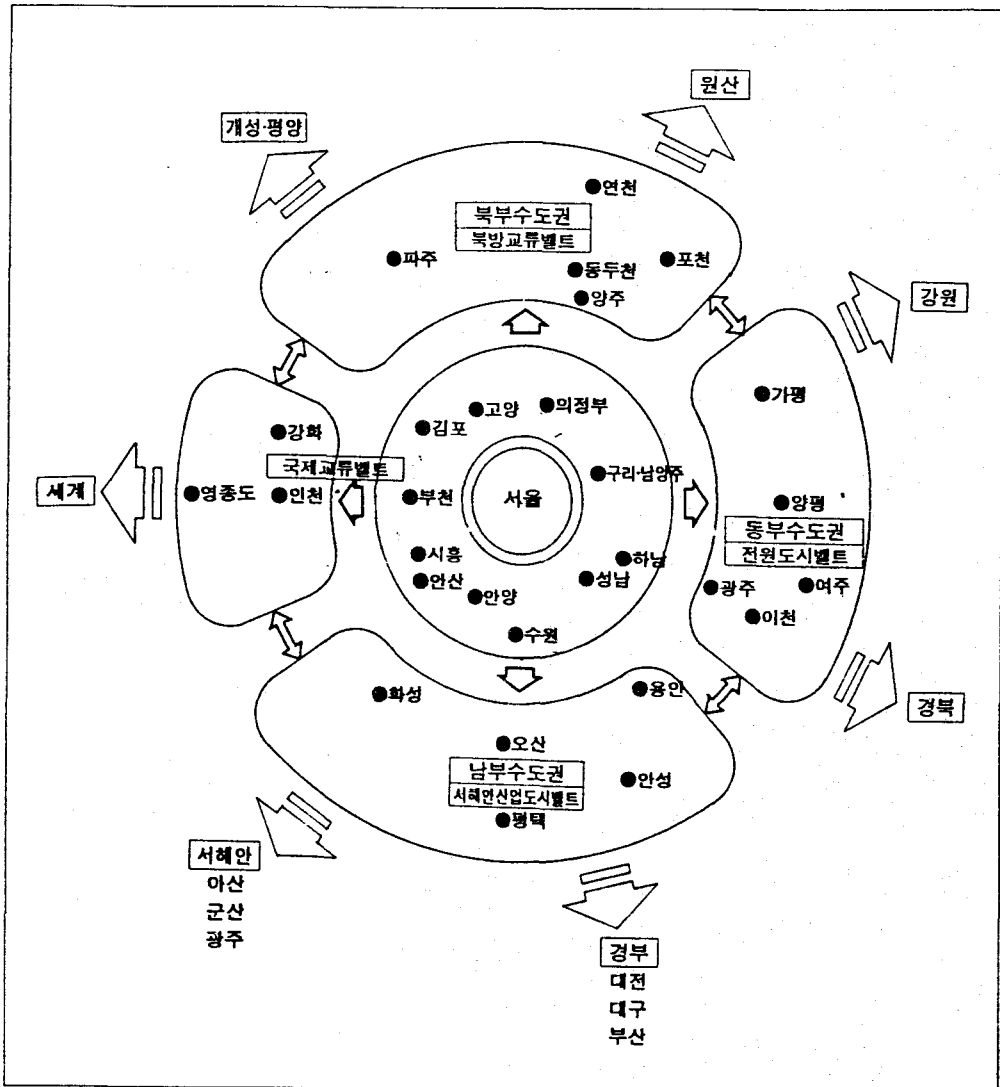
- 공간구조 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
 - 중앙 : 공간구조 개편방향 제시, 광역기반시설 확충
 - 지방 :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, 지역생활권내 기반시설 확보
-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의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생활권별 발전계획을 '98년말까지 수립하여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추진
 - 지역생활권별 정비계획은 지역특성별 자족적인 생활권역으로 육성하는 추진시책을 마련

2. 공간구조 개편방안

1) 서울-인천지역을 국제교류의 중심축으로 정비

- 「서울-인천-영종도」축의 국제업무공간화 추진
 -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국제금융, 첨단정보 및 통신 등의 국제기능을 강화
 - 대형 컨벤션센터, 전시장 등 국제교류 및 업무시설의 확충
 - 인천국제공항의 주변에 「국제업무공간」 조성

수도권 공간구조 개편방향



- 국제교역기능 및 물류수송기반의 강화
 - 인천공항·항만의 복합수송기능 강화 및 텔레포트 연결로 교역중계기능 확보
 - 경인운하건설 및 서울외곽순환교통망 구축으로 수송능력 확충
- 경인축의 공간구조 고도화 및 서울 주변도시와의 연계기능 강화

- 과밀화된 서울기능의 지방 및 수도권외곽 이전을 적극 유도
- 국제경쟁력 강화기능을 집중적으로 수용
- 서울주변도시의 서울의존도 완화 및 자족기능 수행능력 강화

2) 안산-아산만 축에 수도권산업의 집중 배치

- 서해안에 수도권 필수산업의 입지를 유도
 -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분산
 - 안산-아산 공단간 임해산업의 배치 및 내륙공업단지간의 연계
- 수도권과 지방간의 연계물류유통거점지역으로 조성
 - 아산신항과 인천항간의 물류연계망을 구축
 - 고속도로-산업철도 등을 연계하는 광역수송망 건설 및 주요 교통결절지역에 물류유통단지 조성
-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적이고 쾌적한 지역생활권 형성
 - 기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배후 농촌과 조화되는 정주공간을 구축
 - 지역생활권내에 자립적인 교육·문화·여가시설을 보강

3) 파주-동두천-포천 지역에 북방교류기능 배치

-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
 - 남북간 인적·물적교류에 대비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등의 조성 검토
 - 기존 중심지의 통일지원기능 특성화로 남북교류 전담도시기능 수행
-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존 및 관광자원화
 -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와 자연환경 보존방안 강구
 - 자연생태공간과 역사적 유적지 등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권을 조성
-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거점지역 육성
 -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정착 및 배후 지원기능을 강화

- 중소공단, 출판문화, 관광 등의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자족기반을 확충
- 지역간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망 및 남북교류교통망 정비

4) 이천-양평-가평 지역을 전원도시벨트로 조성

- 자연친화적인 자족적 전원생활공간으로 정비
 -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전원주거도시로 개발하고,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실버촌, 휴양촌, 주말농원 등을 확대
 - 무공해·첨단 소규모 공업단지, 연구단지 등을 조성하여 자족기반을 확충
- 하천과 자연을 활용하는 종합관광지대로 개발
 - 한강수변의 여가공간화 및 종합 휴양관광지 조성
 - 농업특화단지, 도예산업 등의 관광자원화 촉진
- 지역간 연계교통망의 확충
 - 남북축의 도로망 건설 및 경춘·중앙선 등의 복선화 추진

IV. 권역별 정비방향

1. 권역구분 및 정비전략

가. 권역구분

- 지역특성에 따라 과밀억제,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
 - 과밀억제권역 :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
 - 성장관리권역 :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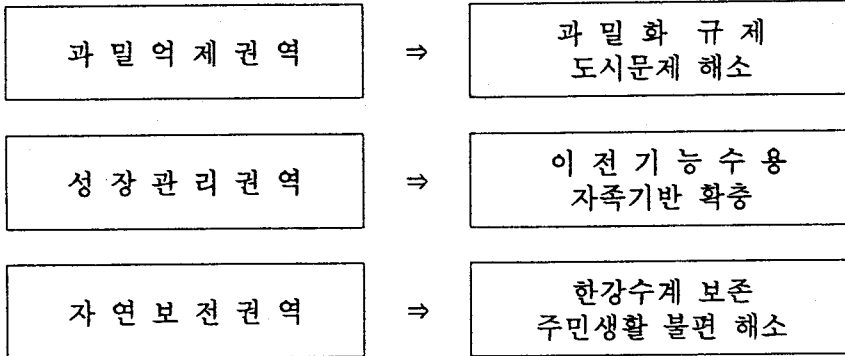
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

- 자연보전권역 :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
○ 중요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인 방향에서 권역조정을 검토

나. 권역별 정비전략

-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정비의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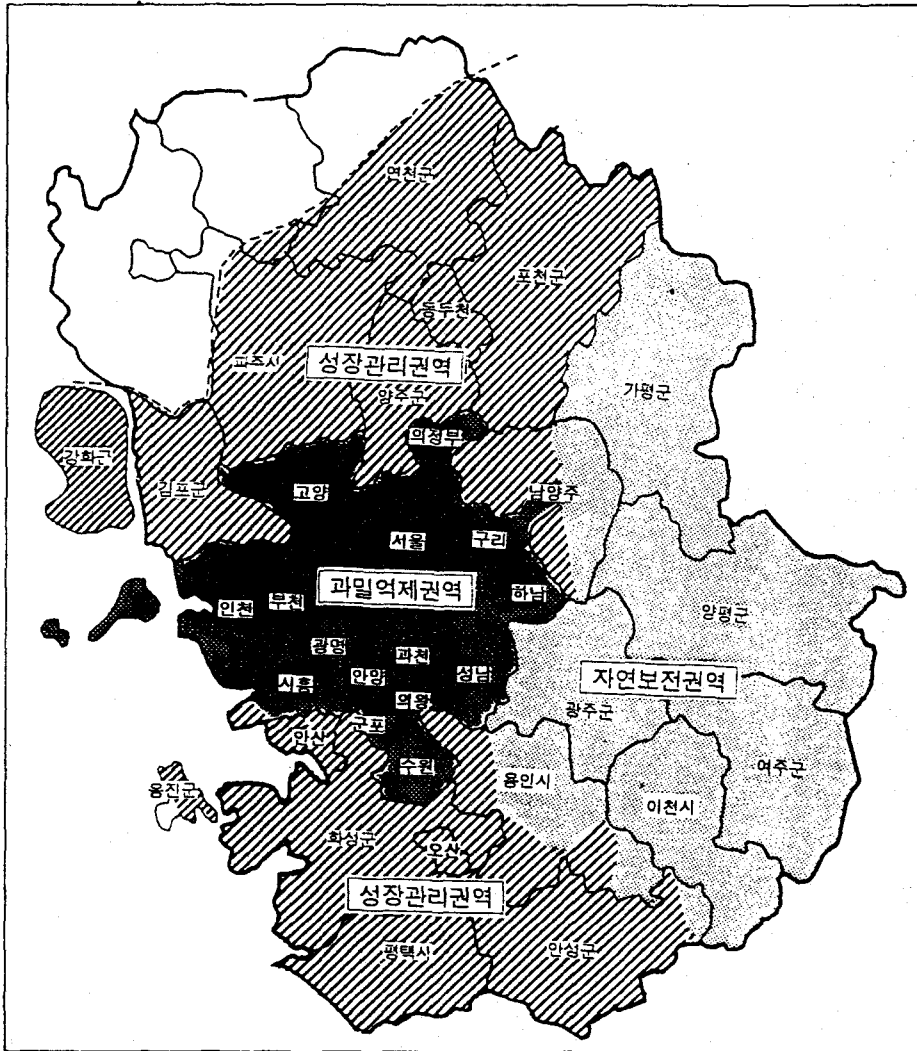


다. 수도권 권역별 현황(1994)

- 수도권 면적의 17.8%인 과밀억제권역에 87.6%의 인구가 집중

구 분	과 밀 억 제	성 장 관 리	자 연 보 전
면적(km ²)	2,091	5,820	3,831
인구(천인)	16,737	1,782	593
행정구역	서울, 인천시의 14개시	7개시 8개군	3개시 5개군

< 수도권 권역구분도 >



2. 권역별 정비방향

가. 과밀억제권역

1) 기본방향

-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규제 및 외곽분산 추진
- 첨단정보, 국제교역 및 고급서비스기능 위주의 권역기능 정비

2) 부문별 정비

□ 도시정비 및 토지이용

- 대도시의 과도하게 집적된 시설은 부도심 및 외곽으로 분산
- 주변 위성도시에는 자족적 일반업무·유통 등 대도시 유출기능 유치로 자족적 도시기능을 보강
- 복지, 체육·문화, 역사시설 등 여가 및 문화공간을 적극 확충
- 시설이전용지는 주변여건과 기반시설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용도로 이용·관리

□ 공업의 배치

- 대기업공장의 신·증설을 억제하고, 장치형업종의 대규모공장과 재래형업종 등은 지방으로 이전
- 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용효율을 높이고 미래첨단·중소기업의 입지공간을 정비

□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

- 대학
 -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신·증설을 억제
 - 지방이전 대학의 대학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강구

- 공공청사 입지의 제한
 - 국가중추관리기능과 무역, 금융, 언론, 정보·통신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의 제한적 입지 허용
 - 업무가 특정분야에 한정되었거나 지방과 관련이 많은 기관 및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과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의 지방이전을 유도
 - 청단위 기관의 대전둔산지역으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부속기관도 이전을 검토
- 대형건축물(업무·판매·복합용 건축물)
 - 건축물의 규모는 주변의 환경여건과 교통, 상·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처리용량에 따라 결정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의 철저 시행
 - 과밀부담금은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
- 연수시설의 증설 억제
 - 연수시설의 신축은 금지하고 지방의 연수시설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이용제도를 개선

4. 성장관리권역

1) 기본방향

- 수도권입지 필수시설의 지역특성별 배치
-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 확충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

2) 부문별 정비

도시의 자족기능 강화

- 기존 중심지의 자족기반을 조성하여 과밀억제권역 인구의 유입을 촉진
- 외곽지역의 고층,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, 녹지비율 및 공간계획에 관한 기준을 강화

- 광역교통망 및 공간구조개편과 연계한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업무·상업·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자족적인 생활여건 조성
- 준농림지역의 토지개발기준 마련 및 도시지역 편입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강화
- 서해안매립사업은 송도, 시화 1,2단계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외의 신규사업은 적극 억제

□ 공업의 배치 및 관리

-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기존 공장밀집지역의 정비에 치중
- 공업단지내 및 공업지역간의 업종별 계열화로 생산효율성 증대
- 미래첨단산업의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

< 공업지역 공급계획 ('96-2001) >

(단위 : km²)

시·도	공 급 면 적 (km ²)		
	계 (km ²)	기존계획	추가공급
계 (km ²)	25.5	18.7	6.8

주) 공업지역 : 공장용지에 녹지, 공공시설이 포함된 일단의 지역

□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

- 대 학
 -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증원도 억제하며,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학을 수용
 - 개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신·증설은 산학연계 가능지역에 우선 적용
- 공공청사
 - 기존 공공청사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지방이전을 유도
 - 신축은 무역·금융·정보통신·첨단과학등 국가경쟁력 강화기능과 업무가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

○ 연수시설

- 연수수요가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

□ 여가 및 문화공간 확충

○ 다양한 여가공간의 확충

- 도시근교에 산림욕장, 자연학습원, 관광농원, 국민관광지 등 확충
- 서해안에는 해양자원등을 이용한 종합관광휴양시설을 확충

○ 문화·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있는 배치

-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문화·생활체육시설의 적극 확충
- 역사 및 문화유적지를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 및 여가·문화공간으로 활용

다. 자연보전권역

1) 기본방향

- 상수원보호를 위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일반지역의 차등규제
- 수도권 주민의 자연환경접촉 및 여가위락의 장소 제공

2) 부문별 정비

- 중소도시의 자족기반 확충으로 인구정착을 유도
 -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형 산업단지, 연구단지를 조성
 - 수도권내 자연취락을 환경친화적 전원주택지로 정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료, 휴양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
- 주변도시와 배후농촌지역을 연계한 도농복합형 개발
 - 중심지의 유통, 업무, 교육·문화 등 도시서비스 시설을 확충
 - 주변배후지의 중심지시설 이용체계 개선
- 대규모의 택지·공장용지등 개발사업 금지 및 공해성공장의 신·증축 규제

- 환경보존이 가능한 선에서 수도권주민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관광지조성사업 규제 개선방안 강구

□ 공업의 관리 및 배치

- 첨단형 소규모 공업용지의 제한적 조성
 - 저개발 시군에 대한 제한적 공업입지 조성
 - 경지정리지역, 상수원보호구역, 문화재보호구역, 수질보전에 영향이 많은 지역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억제
- 계획입지 중심의 전문화된 공단 조성
 - 첨단산업과 연구·기술·정보처리등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환경관련법령에 의거한 적정 업종을 유치

3)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

- 대학
 -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입학정원의 증원도 억제
 - 전문대학 신·증설은 산학연계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추진
- 공공청사
 - 공공청사의 신·증축은 수질오염의 영향이 적고 농지 및 산림의 훼손이 적은 지역으로 한정
- 연수시설
 - 기존 연수시설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신설은 억제

V. 광역시설의 정비

1. 교통시설의 확충

가. 철 도

- 단계별 철도망의 확충 지속
 - 2001년까지는 기 확정노선 및 서울중심의 방사형 철도망 구축
 - 2001년 이후는 서울우회노선 위주의 철도망 확충
- 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·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
 -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철도수송분담율을 28%('94) → 50%(2001)로 제고(10개 노선 312km)

구 분	노 선
신 설	제2경인선, 인천국제공항선, 남부동서선, 일산선, 분당선연장, 이천선, 동부남부선
복복선화	경원선, 경인선, 경의선

- 수도권 순환선 및 지역간 연결망 확충(12개노선 521km)으로 분산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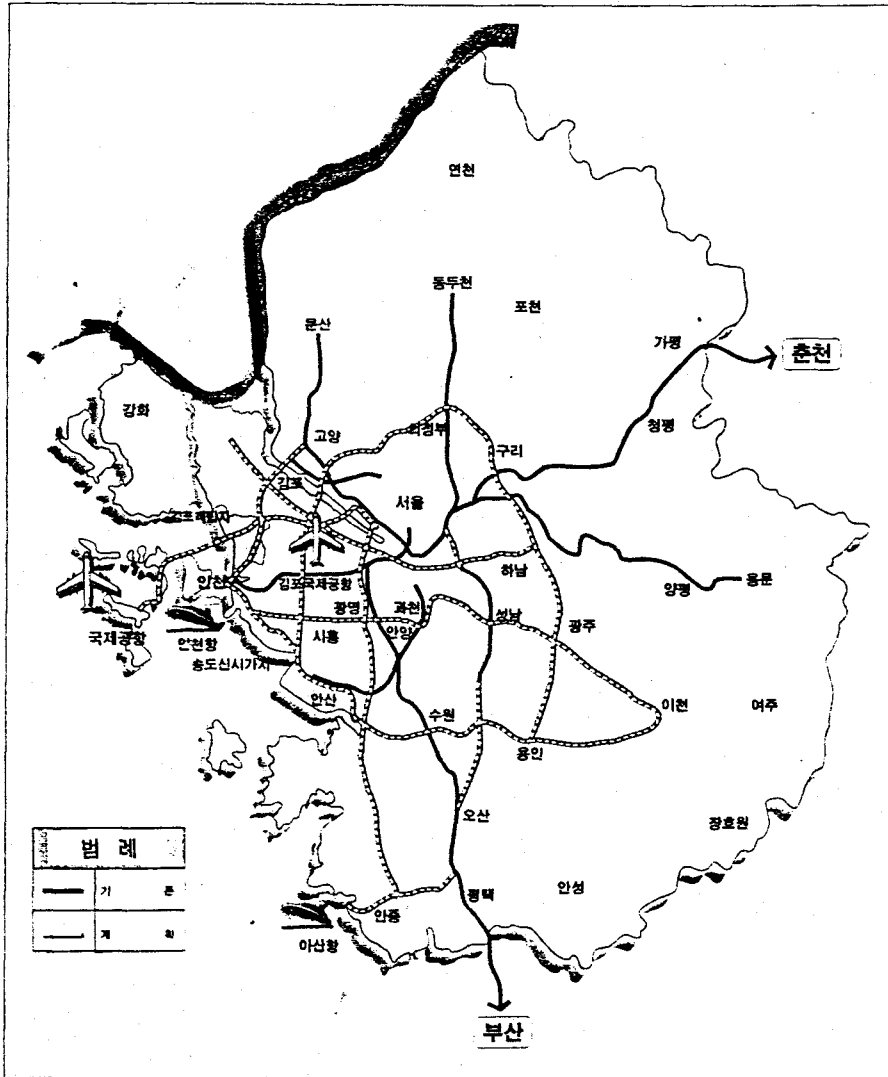
구 분	노 선
신 설	서해안선, 수인선, 서부외곽순환선, 아산항연결선
복선화	경춘선, 경의선, 경원선, 중앙선 경부선 (3복선, 복복선)

나. 고속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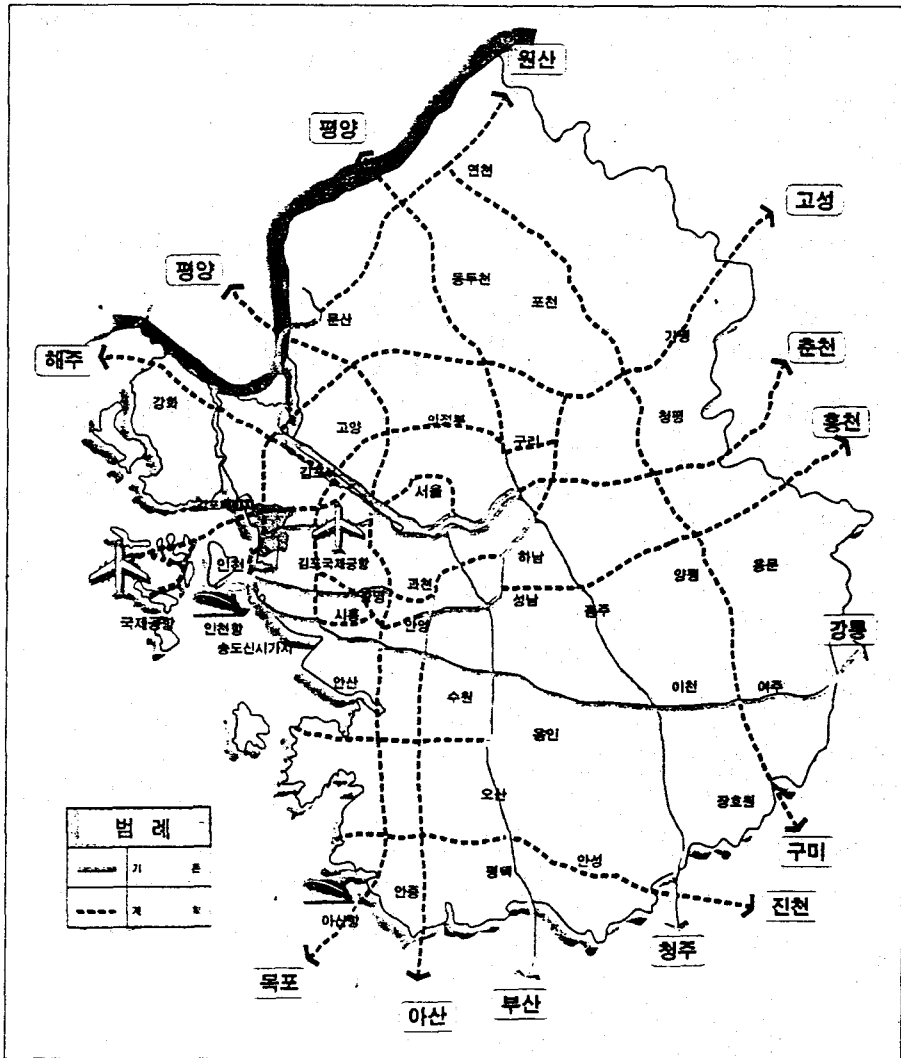
-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망 확충(4개 노선 201.4km)
 - 2001년까지 서울 내부순환 및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밀집지역 교통난 완화
 - 2011년 이후는 지역간 연결망 중심의 추가노선 건설

- 장기적 안목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도로 건설 (16개 노선 826km)

< 수도권 전철망 구상 >



<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 >



다. 간선도로

- 고속도로의 연계 및 대체기능을 수행할 간선도로망 확충
 - 읍면간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존 국도중심의 격자형 간선노선망(5x5)을 구축

- 장래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교통수요가 집중될 지역은 지방도, 군도를 중심으로 한 보조노선을 구상
- 읍급이상의 도시주변구간은 우회도로를 건설하고,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교차 지점에는 고가도로 및 지하도등 입체교차시설을 설치

라. 공 항

-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세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
 - 1단계(1999년) : 활주로 2본, 여객·화물터미널등
 - 2단계(2011년) : 활주로 1본, 공항 및 접근시설등
 - ※ 완공후 여객처리 (연간 백만명) : 13('94년) → 46(2011년)
- 김포공항은 관제시설개량등으로 항공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신공항 개항후에는 역할을 분담

마. 항 만

- 아산신항의 개발
 -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아산국가공업단지의 지원과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도권의 거점 항만으로 개발
 - 1997년까지 연간 1,500만톤, 2001년까지는 연간 2,800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연계교통시설 및 정보시스템이 완비된 항만으로 건설
- 인천항의 정비확충
 - 연안화물, 수출입화물 및 컨테이너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복합 항만기능 강화
 - 6,7부두 축조 및 기존시설의 정비로 하역능력을 확충하여 수도권 긴급물동량 처리능력을 제고
 - 인천북항개발은 민자유치 검토 (5만톤급 5선석, 처리능력 3백만톤)

2. 물류유통

가. 유통시설 확충

- 교통요충지에 대규모 물류·유통단지를 건설
 -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(처리능력 1,357천TEU/년), 부곡화물터미널(처리능력 3,170천톤/년) 건설
 -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전국 물류거점간 대량 수송체계로 개편
- 지역단위의 물류체계 구축
 - 서울, 인천은 방향별로 유통단지를 분산배치하여 도시내 교통혼잡 완화
 -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결절지역에 창고시설, 집배송시설, 도소매시설, 화물터미널등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
 - 물류단지의 지역정보센터 및 지역단위계획과의 연계개발
- 국제화물의 유통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
 - 공항·항만에 배후연계시설을 확충하고 국제물류센터 기능을 보강
 - 연안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을 확충

나.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

- 경인지역의 컨테이너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 ('93년 28%→2003년 43%)
 - 고속철도에 연계되는 컨테이너 운행열차 증설, 장대열차 운행
 - 의왕ICD와 부산간의 직행열차 운행
- 연안해상수송 활성화와 경인운하건설 추진
 - 컨테이너 화물의 연안해상수송 활성화를 위한 항만 및 전용시설의 건설 확대 (인천항 '93년 25천TEU→2003년 94천TEU)
 - 경인간 대용량 화물의 경제적 운송을 위하여 인천-한강-행주대교간을 연결하는 경인운하(19.1km)를 건설하고 화물터미널건설 등 부대사업 추진

- 주요 물류거점의 배후 교통시설계획은 수도권 광역종합교통계획과 연계하여 추진

다. 종합물류정보망 구축

- 종합물류정보망의 실용화 조기실현 추진
 - 화물추적, 재고관리, 선박스케줄, 통계자료 조회서비스 등의 해운물류정보망 체제 확립
 - 열차의 편성·운영, 차량의 이동·배치 등 철도운영관리업무의 전산화
 - 무선운행허가, 전자운행일지, 적정화물차량배치, 최적경로, 과적여부 등 운행정보의 제공을 위한 화물유통·운송정보망 구축
-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, 금융 및 입지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업단지내 집배송단지의 설치를 유도
-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화물터미널, 항만시설등의 지역간 물류 초고속정보망을 확대 실시

3. 정보통신

-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 추진
 - 국가·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구축(2010년)
 - 지역중심도시, 산업체 밀집지역등 정보화가 용이한 지역에 우선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2015년에는 일반가정까지 연결
- 지역정보센타의 육성으로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
 - 지역중심도시에는 광역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읍·면·동에는 하위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정보화를 확산
 - 광역정보센타는 지역정보공급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산업·행정 등 공공성이 높은 정보서비스를 공급하며, 하위지역정보센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공급

-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텔레포트를 개발
 - 지역특성 및 개발방향에 맞는 텔레포트를 개발
 -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외곽에 텔레포트건설을 유도하여 도심기능의 분산과 부도심기능의 활성화에 기여

4. 용수공급

-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신규 수자원 개발 확대
 - 2001년대 이후의 용수수요를 대비하여 영월댐의 건설을 2001년까지 완료
 - 2011년까지 추가댐을 건설하여 30억톤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
 - 댐공급율 : 43%('94) → 54%(2011) 확보
 - 수도권내 용수의 균형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동남부지역은 남한강 본류에서 수원을 확보·공급
-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역용수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충
 -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(220만톤/일, 22개시군)을 계획대로 추진
 - 수도권 6단계(110만톤/일), 7단계(150만톤/일) 사업의 지속 추진
 - 영중도, 평택, 송탄, 김포, 남양주지역 등의 용수 공급
 -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(15만톤/일)를 2001년까지 건설하여 동두천, 포천 등 4개 시군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
- 용수공급의 계획적 사용을 도모
 -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에 의한 공급을 우선
 - 기존의 광역상수도는 도시계획, 공공택지개발 등 계획사업에 우선 공급
 - 잔여분에 한하여 개별사업에 배분
 - 광역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지방상수도 확충

〈 수도권 광역용수공급계획 〉

(단위 : 천톤/일)

구 분	1994	2001	2011
계	5,455	8,755	10,255
· 1-4단계	5,455	5,455	5,455
· 5단계(92-98)	-	2,200	2,200
· 6단계(97-01)	-	1,100	1,100
· 7단계(01-11)	-	-	1,500

- 수원의 다원화와 용수수요관리시책을 추진
 - 해수의 담수화와 지하수개발로 해안·도서지역의 물부족문제 해소
 - 중수도, 절수형기기 개발, 노후상수도망 교체로 절약적 용수관리의 추진
 - 댐원수·광역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

-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을 위한 종합적 수자원 보전대책 추진
 - 적정수준의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하수처리장 확충
 - 산림육성과 개발제한으로 수원지역을 보호하고 하천 및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·제도적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수질보전 대책 추진

VI. 환경보전과 관리

1.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·추진

- 한강수질의 개선 및 생태계 복원
 - 팔당호의 수질을 II등급수 → I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
 - 한강상류지역 하수처리율 : 40%('94) → 100%(2011)
 - 하천복개를 억제하고 자연하천 조성을 통해 한강생태계 회복

○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

- 서울, 인천 및 수도권 주요도시에 오존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운행제한 등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
- 전철망의 확충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
- 경유차량 비율을 연차별로 낮추고 시내버스와 대형트럭 등 경유차량에 매연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

○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입지 도모

- 폐기물의 안전·위생처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위생매립지 및 소각·재활용센터를 대폭 확충
 - 혐오시설의 환경정화능력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
 -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포츠·복지·생활환경 교육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

○ 매립지의 토지이용방안 모색

- 난지도 등 매립완료지역의 환경복원대책 마련
- 수도권 쓰레기광역매립지에 환경연구 관련시설을 유치

○ 「수도권 그린네트워크」 구축

- 서해안과 한강, 비무장지대의 생태연결지대, 주요 산악축과 도시내 공원 등의 녹지대 조성을 통한 대단위 그린네트워크 구축
- 도시내 녹지공간체계를 구축하여 대단위 그린네트워크와 연결
- 물과 녹지, 생물들을 조화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하고 휴식·친수·자연학습 공간을 확충

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도모

○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의 추진

- 개발계획의 입안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의무화, 오염배출량의 저감 등 환경보

- 전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
- 서해안의 임해공업지대를 연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는 통합적인 연안역관리계획 수립·추진
- 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기능제고 사업 실시
 - 그린벨트지역, 상수보호구역 등 환경보전지역의 환경보전실태조사 실시
 -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비 및 보호조치 등을 추진
 - 환경보전지역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주민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
- 주민참여형 환경관리체계 구축
 - 지자체별로 환경정보에 대해 주민이 공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정책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
 - 시·군 등 기초지자체별로 주민이 주축이 되는 환경보전기구를 조직하여 지역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

Ⅶ. 계획의 집행 및 관리

1. 계획의 집행

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
 - 소관별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
-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는 관련계획은 수정하여 집행상의 혼선을 제거

2. 계획의 관리

- 계획평가기능의 강화
 -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연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
 -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주기로 평가 보완하여 계획성을 제고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
- 계획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정·보완조치의 용이화
 - 본 계획에 추가할 사항이나 보다 발전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반영
 - 수도권정비계획은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거나 상위국가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속적으로 운영
- 조정 및 운영
 - 수도권정비정비시책과 관련한 중앙정부간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, 지방정부상호간의 이견 및 분쟁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서 조정
 -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운영

3. 자원조달

- 예산의 우선 확보
 -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확보
 - 그 결과는 매년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
- 사업시행 주체
 - 대규모 광역사업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
 - 도시정비, 생활기반시설 확충,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화개발사업등 국지

적 사업은 지방정부 및 민간이 시행

- 택지, 공업단지, 관광지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시설, 환경기초시설, 용수공급시설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

○ 재원투자의 역할 분담

- 민간부문 :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
- 자치단체 :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을 부담
- 중앙정부 : 자치단체의 투자재원 부족분을 보완하되 가급적 지방발전을 위한 투자에 주력

○ 중앙정부투자가 불가피한 경우 지방도 일부재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제도 실시

주택회보